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17>

JCCT 2023-11-3

새로운 세대정신?: 한국청년세대의 복지태도 지형연구

A New Generational Spirit?: A Study on Welfare Attitude of Korean Young Generations

김신영*

Sin-Young Kim*

요약 이 연구는 한국의 청년세대가 복지제도에 대해 가지는 사고의 지형에 주목한다. 8개의 복지영역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 또는 감소에 대한 태도, 그리고 복지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청년세대의 태도들이 주요 분석내용이다. 사전 가설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탐색적 성격의 연구이며,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적 해석이나 추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가설 도출을 수행하고자 한다. 자료는 2022년에 수행된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조사결과이며 평균차이 검증과 사후 비교, 그리고 범주형 변수 간의 구체적 연관을 보여주는 대응분석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의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졸'과 '대졸'이, 경제활동 상태에서는 '상용직'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30대'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는 '주거'와 '양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한국 청년세대는 중장년 및 노년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상용직 위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정부지출의 확대에 반대하지만,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지출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년층('60대'와 '70대')에 비해 보편주의 복지태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대에 비해 진보적 정치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복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경향은 노년층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적어도 복지이슈에 대해서 한국 청년세대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자의식 구조를 엿 볼 수 있는 분석결과로 보인다.

주요어 : 한국청년세대, 복지태도, 평균비교, 대응분석, 비일관성, 세대의식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explore the landscape of welfare attitudes of young generation of Korea in their 20s and 30s focusing upon potential differences from those of older generations. Korea has recently been in the significant debate on pension reform and the disadvantages of relatively young generations has been on of the most crucial issues during the reform. Survey data from 17th Korean Welfare Panel are analyzed and such variable as attitudes toward government expenditure on public pension, health care, old age support, poverty, family and child care and so on. In addition, welfare-related variables such as universalism vs selectivism, tax increase for welfare expenditure, and political orientation are to be analyzed. The results show several findings. First of all, correspondence analysis shows that young generation in Korea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higher education and full time employment compared to older generations. Secondly, the most interested welfare issues of young generations are housing and child support. Moreover, young generations' attitudes toward government expenditure increase differ from those of older generations on the issues of public pension, housing, and family and child support. Lastly, political orientation of those young generation tend to be progressive and they support universalism in welfare policy, but they do not support tax increase for welfare purpose, which, I would say, is inconsistent.

Key words : young generations in Korea, correspondence analysis, welfare attitudes, inconsistency, generational differences.

*정희원,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접수일: 2023년 10월 3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3일
계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3, 2023 / Revised: October 23,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kimsy@hycu.ac.kr

Dept. of Silver Industry, Hanyang Cyber Univ, Korea

I. 서론

이 연구는 한국의 청년세대가 복지에 대해 가지는 태도의 구조를 탐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청년세대가 갖는 구조적 불리함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세대가 바라보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이 다루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청년세대가 복지제도에 대해 가지는 사고의 지형에 주목한다. 8개의 복지영역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 또는 감소에 대한 태도, 그리고 복지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청년세대의 태도들이 주요 분석내용이다. 사전 가설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탐색적 성격의 연구이며,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적 해설이나 추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가설 도출을 수행하고자 한다. 자료는 2022년에 수행된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조사결과이며 평균 차이 검증과 사후 비교, 그리고 범주형 변수 간의 구체적 연관을 보여주는 대응분석이 활용되었다.

II. 본론

1. 이론적 배경

1)세대

일반적으로 사회학 또는 정치학에서 바라볼 때, 사회정치적으로 의미와 실체를 가지는 세대는 단순히 출생 시기를 공유하는 생물학적 연령집단이 아닌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속에 자리 잡은 실존하는 공동체로서 연령집단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세대가 사회과학 영역에서 분석적 의미를 갖는 경우는 대략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특정 시기에 역사적 및 사회적으로 동일한 정치사회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연령집단의 동시대인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사고, 감정 및 행동의 방식을 가질 때이다.

세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독일 출신 사회학자 만하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만하임에 따르면 학문적 분석 대상으로서 세대란 유사한 시기에 출생한 각각의 개인들이 동질적인 문화·역사적 경험의 축적을 통해 강한 연대감을 갖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공동체, 즉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발생한 집단이며 일종의 사회

적 위치 또는 위치 정체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특정 세대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그 연령집단이 연령이라는 생물학적 특성 이외에 일정 유형의 사고, 감정, 행위방식 등을 공유하는 일종의 준거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1].

만하임은 동일한 역사·문화권에서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동년배로서의 위치만을 공유하는 것을 ‘세대 위치’(generation location)라고 명명하면서, 세대 위치를 공유한 사람들이 특정의 역사적 시간을 경험하면서 연대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회변동을 만드는 힘을 형성할 때 이른바 ‘실제 세대’(generation as an actuality)를 구성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하임의 세대 연구가 사회과학에 기여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다. 첫째, 계급 또는 계층과 마찬가지로 세대가 사회변동의 중요한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정교화 한 것, 그리고 둘째, 세대성의 본질을 세대가 공유하는 의식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세대 현상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박재홍[2]과 전상진[3]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박재홍은 만하임의 세대론을 한국의 실증 자료 분석에 기반하여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확장시키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하임과 마찬가지로 그의 논의에서도 세대는 집단적으로 공유된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며 다양한 경험들 가운데 특정 경험 들을 연결하고 해석하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원천적이지 집단적 경험의 기원이 반드시 있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세대 구분에 있어 청소년 시기의 경험을 강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세대를 나누는 주된 경험은 청년기의 경험이며 청소년기 유사하고 집단적인 경험의 공유가 세대가 이후 시기의 안정적인 사회적 단위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박재홍의 주장과 달리 전상진은 세대의 형성은 인생 초기, 즉 청소년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박재홍이 초기 청소년기 경험이 이후 삶 속에서 각인되고 프레임이 되는 경향을 강조하였다면, 전상진은 세대는 생애 어느 시점에서든지 특정 경험과 의식의 공유 및 이에 기반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전상진의 논의는 특히 한국사회 노년세대 연구과정에서 인생 후반부에서 집단

적으로 표현되는 가치 또는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준거를 제시해 준다고 할 것이다.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박재홍과 전상진의 세대에 대한 논의는,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각각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로 명명될 수 있다. 전자가 청소년기 세대의식의 발생과 일정 수준의 고착, 그리고 청소년기 이후 세대 의식 또는 가치지향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특정 세대의 세대 의식과 세대 현상은 생애 어느 단계에서든지 새롭게 생성되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 세대 갈등의 기전에 대해서도, 두 접근의 설명은 차이가 난다. 박재홍의 객관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세대 형성은 객관적인 세대 상황과 유사한 역사적 사건의 체험, 그리고 그에 기반한 동류의식 및 다른 세대와의 차이 차이 인식 등의 조용적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에 기반한 세대 의식은 그들만이 경험한 고유한 관계와 해석에 근원적으로 기반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생물학적으로 출생기반을 달리하는 소위 다른 세대는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그것에 대한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 갈등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 전상진의 구성주의 접근에서는, 역사적으로 특정시기와 공간에서의 고유한 세대 관계가 해당 시기와 공간에서의 세대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세대 관계는 복잡하고 가변적인 장(場)에서 항상 구성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보자면, 권위주의, 예절, 공경 등이 강조되고 이에 대해 젊은 세대가 저항감을 가지는 것은 특정 사회구조 속에서 권력을 중심으로 한 세대 관계로부터 세대 인식과 세대 갈등이 조성되며 이는 갈등뿐만 아니라 부양과 재생산의 상호적 교환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2) 복지태도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적 이익, 자신의 속한 계급, 계층, 및 제도적 위치,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 등의 다양한 층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경제적 인간관(Homo economicus)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경

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 역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개인의 복지태도가 자신이 속한 계급이나 계층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에 따르면 복지제도란 시장경제의 작동에 의해 파생된 계급 또는 계층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치적 개입이며 따라서 제도의 결과와 그것에 대한 태도 역시 계급과 계층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결국 경제적 인간관을 갈등주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태도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의 영향을 중시하는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화 또는 성장과정에서 학습된 평등지향주의와 사회적 공유 및 연대의식 등은 국가나 정부의 역할 및 불평등의 기원과 현실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도움을 집단적 이해관계 또는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4].

역사적으로 볼 때, 복지태도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기반한 집단별 차이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하여 마르크스주의류의 계급결정론 또는 계급정치적 약화에 따른 탈계급적론과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발전해왔다. 개인의 계급적 지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들에 따르면, 서구의 경험과 달리, 한국의 경우 개인의 계급적 지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거나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국내 실증 연구들은, 오히려, 계급적 지위가 높을수록 복지제도의 확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계급지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 등의 요인들에 의해 매개되거나 심지어 굴절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복지태도에 대한 계급설명력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특수고용형태의 발달로 인한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 간의 불투명한 경계,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 계급의 빈민화로 인한 노동계급의 계층적 동질성 약화 등이 지목되고 있다[5] [6] [7] [8].

신제도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제도로부터 발생한 복

지지위와 복지태도 간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에 따르면 급속도로 확대된 국가복지제도 들은 기존 산업사회 계급분류의 경계에 종속되지 않는 특성들을 띠는 새로운 이해집단 들을 창출하였다. 대표적으로 연금수급 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실업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등이 이들 집단이다. 이와 같은 사회집단들은 적어도 국가복지의 영역에서 자본가나 노동자집단과 같은 고전 산업사회의 경제적 계급과는 일정 무관한 공통의 이해관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복지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자 집단들은 사회집단으로서 복지지지위를 공유하게 되고 이것이 복지태도 결정,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복지제도의 확대, 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5] [6] [7] [8].

복지태도는 개인이 소속된 인구사회학적 집단이나 계급·계층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측면에서 역시 연구되어 왔다. 개인의 가치관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복지태도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이해관계 만에 의존한다는 가설은 개인의 가치, 규범구조 혹은 이념적 지향이 개인의 행위나 태도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을 간과하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대표적 이론가인 켈러와 펠드만에 따르면[9] 복지국가에 대한 개인의 지지 정도는 보편적이고 일관된 정치적 지향이나 이념적 선호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들에 따르면, 많은 일국(single country) 또는 국가 간 비교연구들은 개인의 정치적 또는 이념적 지향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들과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 정도와의 강한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좌파지향적(leftist)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 우파지향적 가치에 비해 보편적 복지와 높은 수준의 국가개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잉글하트가 이름 붙인 물질주의적 가치를 가질 경우 타인의 복지에 대한 공감 보다는 자기 자신의 물질적 행복의 추구를 지향하며 따라서 보편지향적인 국가개입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0].

2. 분석자료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 빈곤패널 및 자활패널,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을 통합한 결과물이다. 2006년도에 7000여 가구를 시작으로 1차년도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활용된 2022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조사는 응답자들의 복지에 대한 태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문항을 활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 연구가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8개 영역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 또는 축소 의견(‘건강보험 및 보건’, ‘공적연금’, ‘교육’, ‘주거지원’,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실업 및 고용’ 지원이다. 8개의 영역별 지출 의견 문항은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또한 복지태도 관련 세 개의 변수(‘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위한 증세’, 그리고 ‘정치적 성향’)가 추가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에 대한 분석에는 두 가지 기법이 활용되었다. 먼저 대응분석은 교차표상의 행(row)범주와 열(column)범주를 저차원 공간상의 점들로 나타내어 그들의 관계를 탐구하는 자료 분석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교차표상의 두 범주형 변수들의 관계는 행변수와 열변수의 독립성 정도를 알 수 있는 교차표 검정이 카이제곱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카이제곱을 활용한 교차표 검정은 변수 간 독립성의 통계적 유의성은 알려 줄 수 있으나, 실제 각 범주형 변수들의 범주들의 어떤 형태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이에 반해, 대응분석은 각 변수들이 범주들 간의 구체적 관련성을 도식적으로 보여 준다는데 장점이 있다. 대응분석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은 복잡한 자료를 요약하고 평이하게 한다는 점이다 [11] [12] [13]. 다음으로 8개의 복지영역 변수 및 기타 복지관련 변수들에 대한 세대별 집단 비교 분석은 분산분석 및 사후 검증이 활용되었다.

III. 분석결과

먼저 대응분석 결과 나타난 한국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상태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분석 결과 한국의 청년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졸’과 ‘대졸’이, 경제활동 상태에서는 ‘상용직’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30대’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는 ‘주거’와 ‘양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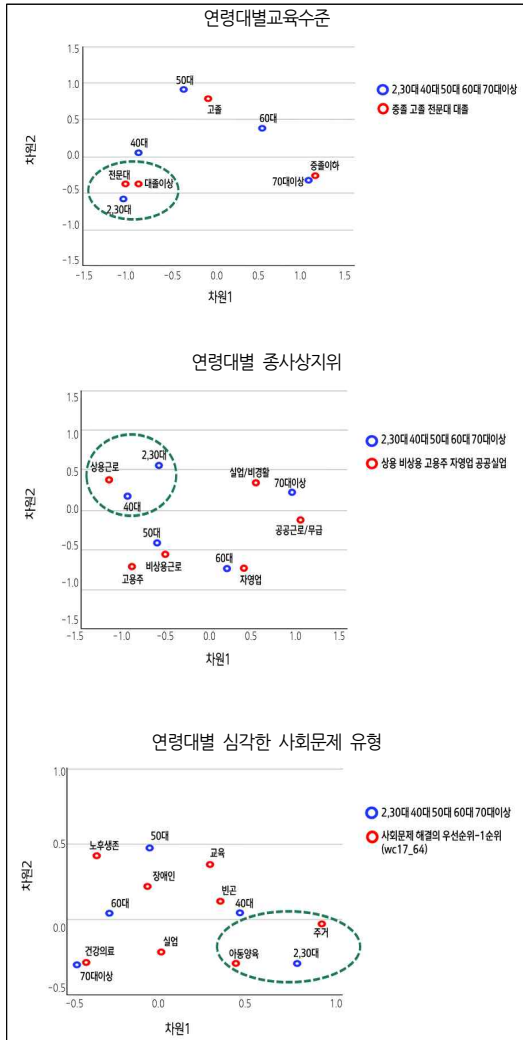


그림 1. 대응분석결과
 figure 1. Correspondent analysis results

다음으로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세대별 평균차이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의수준 .05에서 세대별 차이를 보이는 복지 영역은 ‘공적연금’(F = 7.896/p = .000), ‘주거지원’(F =

6.359/p = .000), 그리고 ‘실업 및 고용지원’(F = 2.967/p = .019)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다섯 개 영역(‘건강보험’(F = .916/p = .453), ‘빈곤층 지원’(F = .539/p = .707), ‘노인생활지원’(F = .751/p = .557), ‘양육지원’(F = .706/p = .548), 그리고 ‘장애인 지원’(F = .784/p = .53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에 대해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경우 연령이 낮아질수록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며 유의한 차이는 ‘230대’/‘40대’ vs ‘60대’/‘70대 이상’에서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주거지원’의 경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30대’와 나머지 세대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업 및 고용지원’의 경우, 유의한 세대별 차이는 ‘40대’와 ‘50대’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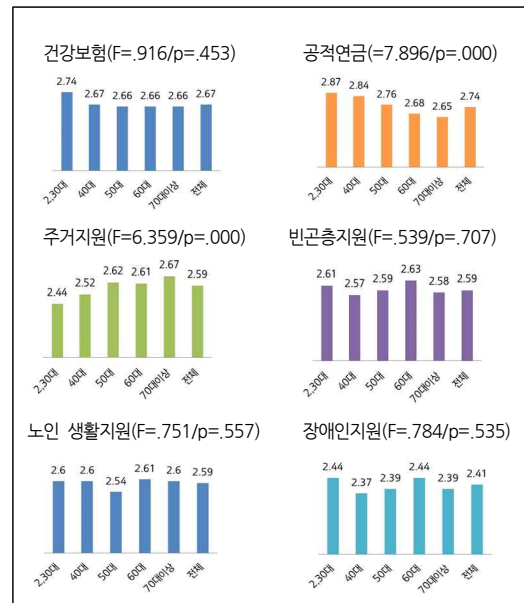


그림 2 세대별 복지태도 차이 검증결과(유의수준 = .05)
 Figure 2 Mean differences of Generational welfare attitudes(Significance level = .05)

다음으로 복지관련 주요변수들에 대한 세대별 평균차이 분석결과를 요약하였다. 유의수준은 계속해서 .05로 설정하였다. 먼저 복지서비스 제공대상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태도 분석결과, 연령이 낮아질수록 보편주의 복지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며($F = 22.747/p = .000$) 유의한 차이는 '230대'/'40대'/'50대' vs '60대'/'70대'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에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증세를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며($F = 8.041/p = .000$), 유의한 차이는 '230대' vs '60대'/'70대'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정치적 성향의 경우, 연령이 낮아질수록 진보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33.976/p = .000$), 유의한 차이는 '230대' vs '50대'/'60대'/'70대'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하는 경향은 노년층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새로운 세대정신?

“복지태도의 측면에서 한국의 청년세대는 어떤 집단인가?”라는 질문은 이 연구의 핵심을 관통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청년세대는 중장년 및 노년세대와 비교할 때 교육수준이 높고 상용직 위주의 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적연금에는 정부지출 축소, 주거지원 영역에서는 정부지원 확대로의 세대 독자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진보성향이며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고 있으나 정작 복지를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는 ‘비일관성(또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복지국가의 규범적 기초를 “생활을 집합적으로 조직화하는 주체로서의 국가를 사회성원들이 지지하고 동시에 책임을 공유하는 것”으로 볼 때 한국의 청년세대 보이는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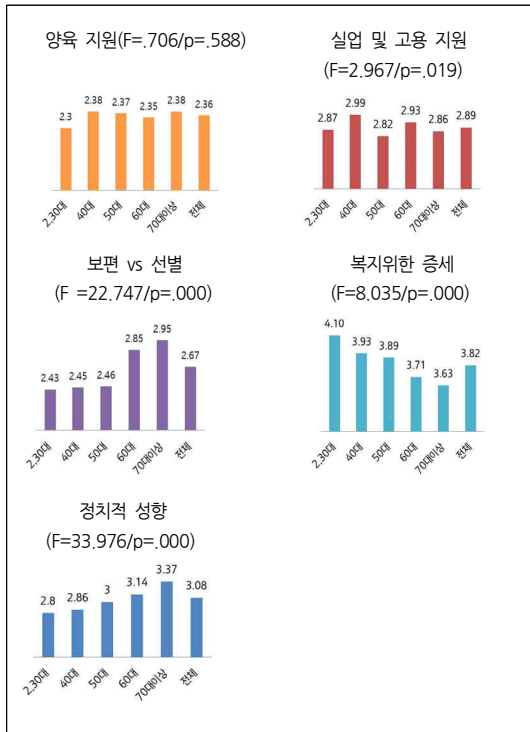


그림 2 세대별 복지태도 차이 검증결과(유의수준 = .05)

Figure 2 Mean differences of Generational welfare attitudes(Significance level = .05)

요약하자면, 한국 청년세대는 중장년 및 노년세대와 비교해 교육수준이 높고 상용직 위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정부지출의 확대에 반대하지만,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지출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년층(‘60대’와 ‘70대’)에 비해 보편주의 복지태도를 지지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대에 비해 진보적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복지를 위한 증세에 반대

이러한 소위 ‘비일관성’을 이해하는데 한국을 연구하는 인류학자, 마이클 프렌티스 교수의 한국 대기업 사례연구는 일말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의 저서 『초기업(超企業·Supercorporate)』에 따르면 상명하복 질서를 중시하는 한국 대기업의 ‘나이 든 남성 관리자’와 ‘젊은 ‘MZ 세대 직원’의 갈등에 주목한 결과, 첫째, 수평호칭 정책이 직급제로 회귀하는 모습은 위계질서엔 거부감이 컸지만, 능력에 관계없이 똑같이 보상받는 수평적 구조도 거부하는 모습이며, 둘째, 젊은 직원들은 자신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받고 합당한 보상을 받길 원하고 있으며, 셋째, ‘젊은’ 상사를 비하하면서 자신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 존댓말을 쓰고, 항상 일정한 어조를 유지하며, 회의를 커피숍에서 하고 술 마시는 회식 대신 맛집에 가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렌티스 교수는 한국 젊은 세대의 이러한 모습을 낡은 정신에 대한 반향으로 나타난 ‘새로운 세대 정신’으로 이름 붙이고 있다 [14].

정치적으로 진보성향이며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지만, 나에게 실제적 손해를 초래하는 증세에는

반대하고 있는 한국 청년세대들에게 복지영역에서의 새로운 세대정신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전통적인 복지 국가의 규범적 기초에 반항 또는 저항일수 있다. 즉, 보편적 성격의 복지국가와 진보적 정치이념을 지지하지만, 나의 삶을 내 의사와 무관하게 조직화하는 정부에 반대하고, 복지제도가 부여하는 의무에 반대하며,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복지제도를 한국의 청년세대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는 2차 자료 분석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조사문항의 제한으로 인해 청년세대의 복지태도의 지형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기에는 애초에 무리가 있었다. 일견 비일관되고 이중적으로 보이는 한국 청년세대의 복지에 대한 태도는, 분명히 공통의 처지에 기반한 독자적 자의식의 생성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제한된 증거에 기반한 거대 결론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을 인정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가 복지영역에 있어 한국 청년세대의 새로운 자의식 출현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 일수는 있으나, 특정 복지영역 그리고 관련 영역에서 중장년 및 노년세대와 확연한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한국인의 복지태도 연구에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 여기에는 주관적 정치성향, 사회정의와 분배에 관한 태도, 평등 지향적 성향, 그리고 탈물질주의적 가치 (post-materialist value) 등이 포함된다.

**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 및 농어촌가구를 조사대상에 포함 시킴으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을 한층 증가시켰으며 조사내용 또한 가구특성, 가구경제상황, 가구 및 가구원의 복지수급 및 복지욕구 등 매우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 1 = '훨씬 더 많이 지출', 2 = '좀 더 지출', 3 = '현재 수준으로 유지', 4 = '조금 덜 지출', 5 = '훨씬 덜 지출'

References

- [1] Mannheim, Kar, 1928. "The Problem of Generation", in the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2] Jaehong Park., "A Study on the Concept of Generation: Focusing upon Cohort Perspective", Korean Sociology, vol 37(3), pp. 1-23, 2003.
- [3] Sangjin Chun., "Excess of Generation Concept, Poverty of Generation Concept: A Study on the Method for Generation Study.", Korean Sociology, vol 38(5):31-52, 2004.
- [4] Shinyoung Kim, "A Exploratory Study on landscape of Welfare Attitude of Korean.", Social Science Study, vol 29(1):25-57, 2016.
- [5] Sanghoon Ahn, "The Mechanism of Welfare Politics and Non-class Cleavage Structure", Social Welfare Research, Vol 16:87-115, 2000.
- [6] Sanghoon Ahn,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ro-Welfare Attitudes of Koreans and Its Path Structure", Korean Social Policy, Vol 16(1):163-192, 2009.
- [7] Eunsun Choo and Jungmi Baek., "The Landscape of Korean Attitudes for Welfare Policy, Social Welfare Policy, Vol 34(3):203-225, 2008.
- [8] Esping-Anderso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9] Zaller, J, Feldman, S. 1992. Simple Theory of Survey Response: Answering Questions and Revealing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3):579-616.
- [10] Inglehart, R, Abramson, P.R. 1999. Measuring Postmaterialism.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3):665-677.
- [11] Hyngjin Roh, 노형진. "Theory and Practice of Correspondence Analysis", Hanwool Press, 2008
- [12] Abdi, H. · Valentin, D. 2007.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In N. Salkind (Ed.), Encyclopedia of measurement and statistic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pp.652-658.
- [13] Zaller, J, Feldman, S. 1992. Simple Theory of Survey Response: Answering Questions and Revealing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3):579-616.
- [14] Frentis Michael., "Supercorporate", Antares, 2020.